



## 허 장관, “자연순환형 양돈정책 중점 추진” 밝혀

- 본회 최영열 회장, '가축분뇨자원화 촉진법' 제정 등 건의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충청남도 홍성군청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과 도협 의회장 등 양돈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DDA협상대책과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연순환형 양돈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개방화시대를 맞아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못지 않게 농가나 생산자단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고민하고 토의한 뒤 정책을 수

립하고 농가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농림부, 충남도, 홍성군, 본회, 농업중앙회와 돼지브랜드업체인 부경양돈 포크벨리, 문경약돌돼지 등 8개 기관·업체가 소관별로 양돈산업 발전방안과 브랜드육성 방안, 분뇨처리 대책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농림부는 향후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 방역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품질고급화, 차별성 제고를 위해 우수 양돈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안전성 관리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으며, 충남도는 시·군 특성에 맞는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브랜드업체들은 혈통관리, 사료·사양관리 통일, 규모 확보 등 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각각 강조했다.

한편 본회 최영열 회장은 허 장관에게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건의하였는데 우선 양돈업 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돼지 두당 분뇨 배출원 단위를 두당 8.6에서 4.6내외로 조정해 줄 것, 가축분뇨자원화 촉

진법을 시급히 제정해 양돈농가의 최대 고민거리인 분뇨처리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독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전염성질병 가축 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 - 농림부,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 제정 고시

농림부는 5월 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을 고시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고시내용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 등은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가축이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은 가축방역관, 시·군 등 소속 공무원,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예찰요원의 예찰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장관은 돈열 예방접종 명령 위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고시에 따라 돈열 발생을 신고하면 50만원, 돈열 예방접종 명령 위반한 것을 신고하면 30만원,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등의 소

### 농림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고시

농림부는 지난 4월 28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고시하고, 세부사항을 정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식육을 국내산 고기와 수입고기로 구분하되 국내산 고기는 한우고기·젓소고기·육우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토록 했으며,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판매 대상은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소, 돼지의 식육이다. 다만 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및 식육판매 표시관설치 등은 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돼지고기도 적용된다. 돼지고기는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로 구별하고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 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고기 수분할 부위명은 안심살, 항정살 등 16개 부위이다. 이 고시는 서울특별시 전지역 등 기존의 지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경기도 양주시·포천시, 충청남도 계룡시는 5월 1일부터 추가로 시행되었다.

###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 본격 착수

농림부는 최근 부처간 축산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 축산분뇨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축산분뇨 관리 추진기획단(단장 차선숙 환경부차

## PMWS, 6개월 이상 집중 관리 필요

### 대부분 5~7주령 이유·육성자돈서 발생

이유자돈 전신성 소모성증후군(PMWS)이 국내 양돈장에 급속도로 퍼져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PMWS 증상은 성돈이나 신생·이유직후의 자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5~7주령의 이유·육성자돈에서 발생하고 있다. 임상증상은 주로 발열, 위축, 호흡기 증상에 따른 폐사 형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위축돈의 40~50%가량이 폐사하고 있다. 주로 3월에서 6월까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환절기 이후에 매년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PMWS의 예방 및 개선방법에 대해 첫째로 가장 이상적인 예방방법은 자돈사의 올인/올아웃이라고 강조한다. 3개월에 한번씩 자돈사를 완전히 비우고 소독 후 완전히 건조하고, 일주일 정도 비워둔 후 자돈을 입식 하는 방법이다. 올인/올아웃이 어려운 경우 차선의 방법으로 돈방 단위로 철저히 수세소독을 하고, 다른 방 돼지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튼튼한 자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상적인 돼지는 21일령 전후에 이유 하지만 자돈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30일령 이상까지 이유자돈을 분만사에서 키우다가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과밀 사육은 자돈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사료효율과 항병력을 저하시키므로, 적절한 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하나 너무 적은 두수를 수용할 경우에는 이동 후 온도 유지가 되지 않아 적응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는 액상형태의 젖에 익숙해져 있는 자돈에게 죽 형태의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이다. 혹은 대용유나 조기이유자돈(SEW)사료 등의 고에너지 사료를 먹이는 것도 한 방법이며, 많은 농장에서 액상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10일 이상 급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생시체중이나 이유시 체중이 가벼운 허약한 자돈은 과감히 도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돈에게서 질병이 시작될 확률이 가장 많으며, 일단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들은 수일 내로 죽거나 심한 위축 현상을 나타내므로 사전에 신속하게 도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PMWS 증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동물약품은 없는 상태이므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통 농장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30~50%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병성 감정 기관의 감수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양돈장에 맞는 약제를 추천 받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관)을 구성했으며, 지난 4월 23일 본회 최영열 회장 등 자문위원들을 선임해 축산분뇨관리 이용대책 추진기획단 자문회의를 개최,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 마련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 착수에 들어갔다.

추진기획단은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공공처리팀 및 자원화이용팀 2개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문단은 본회 최영열 회장을 비롯해 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1

명으로 구성했다.

기획단은 2/4분기 안에 축산분뇨관리 이용대책을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 후 3/4분기 안에는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했으며, 축산분뇨 자원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3/4분기부터 분석을 시작해 4/4분기까지 퇴액비 유통센터 점검, 퇴액비 이용 활성화, 퇴액비 이용 평가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종돈장, 번식용 씨돼지 판매시 혈통확인서 의무 교부해야

### - 7월 1일부터 모든 등록종돈업자 종돈개체별 식별표시 의무화

5월말까지 종돈장 씨돼지 혈통확인서 발급제 시행 준비를 위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농림부는 앞으로 종돈장 씨돼지혈통서 발급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 종돈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농림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등록 종돈업자는 종돈의 개체별로 식별 표시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종돈을 판매하는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동기관이 발행하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함에 따라 각 시·도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내 종돈업체에 대한 등록대장 일제정리, 필요시 등록증 재교부, 등록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해 비치케 하고, 등록기준에 따라 사육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5월말까지 일제 점검한 후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토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 사료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돼야

사료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양돈농가의 돼지 마리당 생산비(약 15만4천원)중에서 사료비가 전체 생산비의 60~70%인 9만~11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곡물가격 및 운송비 등의 인상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 제도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해 양돈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양돈농가가 안고 있는 부채 대부분이 사료회사의 사료 외상 대금으로 타사 내지는 OEM 사료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고가사료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농가에서 담보력이 부족해 정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 부채 농가에 대한 특례 지원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도축검사원 토요일 휴무시 대안 마련돼야”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 계획인 도축검사원들의 매주 토요일 휴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도축업계와 생산농가 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매월 1회 토요일 시험 휴무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들어와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1회 토요일 휴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월 2회 토요일 휴무를 계획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토요일 휴무를 전면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석회진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국립수의과학검

역원,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본회, 도축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축장 토요일휴무시행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도축업계 관계자들은 규모가 영세한 도축장의 경우 오는 2007년 7월 이후에나 주5일 근무가 적용되게 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7월부터 도축검사원의 토요일휴무에 맞춰 토요일 휴무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도축검사원의 토요일휴무에 대한 대안으로 도축검사를 시·군 공무원 뿐만아니라 위생시험소, 지역공수의 등을 활용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도축검사원을 늘려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검역원, '이동가축 방역확인 시스템' 도입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이 6월부터 돼지에 시범 도입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10~11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글로리 호텔에서 축산농가·방역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모델개발 시범사업 연찬회'를 갖고 6월부터 가축 이동을 추적해 나가기로 했다.

검역원은 이번 시스템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주요 가축전염병은 대부분 감염개체의 이동에 의해 전파되며, 양돈농가의 경우 일괄 사육형태에서 종돈 생산농가, 자돈 생산농가, 육성·비육돈 농가 등으로 전문화 되고 있어 돼지의 이동이 빈번해 지고 이에 따른 전염병 전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방역관리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돈 돈열 항체양성률 95.8%로 상승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발표한 올해 3월 검역원 및 각 시·도별 돈열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3월 한달간 돈열 항체양성률은 95.6%를 나타내 2월 95.9%, 1월 95.0%로 꾸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66.7%까지 떨어졌던 자돈의 항체양성률이 3월에는 95.8%로 상승해 어느정도 안정감을 찾았다.

연령별로는 비육돈 95.6%, 번식돈 95.6%, 자돈 95.8%로 비육돈은 0.4% 포인트가 증가했으며, 번식돈은 2.3% 포인트가 감소했다. 한편 자돈은 29.1%포인트가 상승했다.

### "돈열 발생 방지위해 오래된 모돈 자육 도태해야"

돈열을 완전 박멸시키기 위해서는 돈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 해 3월 예방접종 실시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모돈들에 대한 자육 도태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해 3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돈열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돈열 항체양성률이 90% 이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도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돈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돈열 예방접종정책 시행전에 사육되던

모든에서 돈열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예방접종이 누락되거나 위축된 자돈 등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유행성 설사병 작년보다 36% 감소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3월 가축전염병발생 월보에 의하면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전국 11개 농장에서 2,176두의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달 10개 농장 2천23두보다는 다소 증가한 수치이나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는 34농가 7천435두로 전년 동기 누계 34농가 7천435두에 비하면 3배 가까이 감소해 유행성 설사병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월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오제스키는 전남의 1농가에서 4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농림부, 액비저장조 전력 5월부터 '농사용' 적용

농림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로 산업용 전기가 적용됐던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에 농사용 전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간 산업용 전기 적용으로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월별 검침으로 매달 전기료를 납부해야 했던 액비저장조 사용 농가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 단체 또는 경종농가가 농경지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축산농가로부터 분뇨를 제공받은 경종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회원이 액비를 생산하여 자가소비 하는 경우 5월부터 농사용 전기(병)이 적용된다.

### 농림부, 양돈장 악취제거 유도 방침

농림부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양돈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를 첨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양돈농가, 배합사료업체 등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중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발생절감 우수 농가를 발굴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제작, 배부하는 한편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조경수 식재비도 친환경축산직불금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돼지에서 혈전증 치료물질 생산

돼지의 젓과 오줌에서 고가의 의약품인 '혈전증 치료물질(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전증 치료 유전자를 돼지의 수정란에 주입한 뒤 무균 암돼지에 이식, 분만시킨 돼지 5마리의 젓과 오줌에서 혈전증 치료 물질 생산을 확인했다고 지난 5월 3일 밝혔다.

혈전증 치료물질 tPA는 인체의 혈관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혈전용해작용을 유도하며 부족할 경우 혈전 분해 작용의 결손을 가져와 뇌졸중 등 각종 혈전증의 원인이 된다. 축산연구소는 인체의 혈전용해 유전자를 검색하여 유전자 재조합 기법을 이용, 유전자를 합성한 후 모두 103마리의 돼지의 난자에 주입시켜 148마리의 새끼 돼지를 얻어 이중 5마리의 돼지에서 혈전증 치료 물질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양돈인들,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흔들림 없이 지속” 주장

최근 감사원이 액비화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의 필요성을 개진한데 이어 농림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사업 보류 지침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양돈농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양돈농가들은 최근 일부 중금속의 과다검출을 이유로 감사원이 액비화사업 중단이나 재검토의 필요성을 개진한데 이어 농림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사업보류 지침 내용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의 유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농가들은 가축사육에만 전념하고 분뇨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액분리 등만 신경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처리장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제주축산물공판장 공동운영 협약

제주축협(조합장 강용권)과 제주양돈축협(조합장 오경욱)은 지난 5월 3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가칭) 제주축산물공판장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공동사업 신설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 연말까지 공동사업 세부계획을 확정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제주축협에서 관리 운영

하고 있는 제주축산물공판장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양축농가에게 실익증진과 제주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안전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제주축협과 제주양돈축협이 공동 운영하게 된다.

## 양돈수급안정사업 기금 250억으로 축소

농림부는 기획예산처가 지난 4월말 1000억원의 축산물수급안정사업 시드머니를 양돈수급안정사업에 250억원, 가금수급안정사업에 7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에 각각 500억원씩 지원하던 기존의 지원방식과 비교, 양돈수급안정사업 지원금 중 250억원을 가금수급안정사업 자금으로 이관한 것이다.

이번 방침은 양돈자조활동자금이 거출되면서 양돈수급안정위 사업중 일부가 자조활동자금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위의 중복되는 사업을 양돈자조활동자금 쪽으로 일원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시장 수위 차지

올들어 칠레가 국내에 유입되는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 20일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검역시점 기준)은 5천303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679톤)보다 97.9% 증가하면서 벨기에산(4천860톤)을 앞질렀다. 전체 돼지고기 수입은 작년 동기 1만8천633톤에서 올해 2만6천566톤으로 42.6% 늘어났으나 칠레산은

이보다 더욱 큰 폭의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월 20일 밝혔다.

### 하반기 중 일반 은행도 축산정책자금 대출

그동안 농협이 독점 취급해온 농업 정책자금 대출이 올 하반기중 일부 축산 정책자금을 시작으로 일반은행에도 문호가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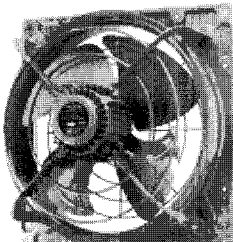
농림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가축방역 경영안정과 닭·오리 등 가금류 계열 화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경영안정사업 등 3개 사업의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올 하반기중 시중은행에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4

### 자조금연구회, '자조금사업 추진상황' 책자 발간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회장 박종수)는 최근 양돈부분의 의무자조금사업 시행을 기념하는 '자조금사업 추진상황 2004' 책자를 출간했다. 총 189쪽 분량으로 꾸며진 이 책자는 양돈, 낙농, 양계, 한우, 양육 등 5개 축산물과 감귤, 단감, 배를 포함한 11개 농산물을 포함한 총 16개 품목의 자조금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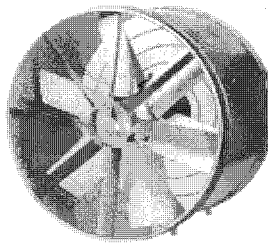
## 쾌적한 돈사 환경은 환풍기 전문 생산업체에 문의

ISO 9001 인증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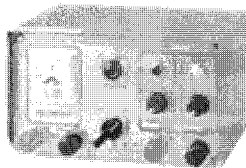
고압 배기팬

- 용도 : 양돈, 양계장, 내부의 암모니아 가스 및 분진, 악취 배출에 적합하게 설계됨
- 특징 : 아연도 강판과 E.G.I 철판 위에 특수도장으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제작된 축사배기 전용 환풍기



축사입기(A-550/600/700)

- 용도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축사내부로 송풍하는데 최적
  - DUCT를 연결하여 사용
  - 양돈, 양계장에 적합
  - 화훼, 원예, 비닐하우스
  - 기타



타이머(HT-45(TIMER))

- 용도
  - 저렴한 실내환기에 알맞게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지와 작동하게 하는 환풍기 전용타이머임.
  - 양돈, 양계장, 환기시스템 등에 사용
  - 기타 일반용도에도 사용가능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도사리 662번지  
TEL : 031-981-8312(대표) FAX : 031-981-6128

[www.HSfantech.com](http://www.HSfantech.com)